

■ 괴물 태풍 '하이옌' 휩쓸고 간 필리핀 타클로반의 참혹한 현장

## 죽음의 도시 탈출 인파로 아비규환... 거리에 시신·쓰레기 뒤엉켜 악취

철수 항공편 '하늘의 별따기'... 한국 구호인력 도착

이재민 수천명 정부 식량 창고 약탈하다 8명 숨져

괴물 태풍 '하이옌'이 휩쓸고 간 필리핀 타클로반. 12일(현지시간) 폐허 더미로 변한 타클로반 공항에 도착한 기자는 아직도 하이옌에 잔뜩 겁을 먹은 듯한 한인 실태호(52)씨를 만날 수 있었다.

대피 행렬에 섞여었던 신씨는 기자들 보자 "이게 바로 생지옥이구나 싶었다"며 그간 말로는 다 할 수 없었던 고통을 털어놨다. 공항 일대는 신씨처럼 죽음의 도시를 탈출하려는 행렬로 발달터를 넘었다.

이날부터 필리핀 정부와 국영 항공사가 군용기와 특별기를 퍼워 주민 철수 작업에 돌입했지만 '발출'을 바라는 주민들이 한데 몰리면서 이곳을 떠나는 비행기표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신씨는 자녀 3명만이라도 먼저 안전 지역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항공편 좌석을 구하려는 행렬에 동참했지만 표를 언제 받아들 수 있을지는 알 길이 없다.

지역같은 이곳을 떠나려는 사람들 속에는 아버리나하게도 타클로반의 문을 열고 제 밭로 찾았다는 사람들은

도 있었다.

타클로반을 빠져나오지 못한 가족을 찾기 위해서다. 공항에서 만난 30대 필리핀 여성은 부모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기편으로 타클로반에 도착했다며 통신두절로 아직도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얘를 태웠다.

1만여명의 사망·실종자가 난 타클로반 일대는 태풍이 휩쓸고 간 지 나흘이나 지났지만 참혹함은 더욱 깊어 가고 있다.

거리에 시신들이 방치돼 있는 것은 물론 윤통 쓰레기와 뒤집어쓴 듯 악취가 진동하면서 숨조차 쉬기 어렵다. 일부 지역은 시간이 지나며 허리춤까지 찢어진 물이 빠졌지만, 상당수 지역에서는 부패한 시신과 쓰레기, 태풍에 무너진 건물 잔해들이 한데 뒤엉기면서 정체모를 전염병 발생을 우려되고 있다.

이날 오후 석양이 모습을 감춘 타클로반은 암흑천지로 변해 버렸다. 전기가 끊긴 탓에 주위를 둘러봐도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이날부터 유엔과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기구들이 현장 활동에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가 급파한 재난대응 인력도 현지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외교부와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이 함께 꾸린 긴급대응팀이 타클로반에 도착해 한국 교민의 안전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소방방재청 중앙 119 구조본부 소속 선발대원 2명이 이날 타클로반에 도착한 데 이어 13일에는 30명의 구조·의료인력이 들어와 구호 활동에 돌입한다.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도 현지에 서 외교부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타클로반 일대에 열대성 저기압이 영향을 미치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한편 13일 GMA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풍 상륙 이후 굽준한 수천명의 이재민이 전날 타클로반의 정부 식량창고를 습격해 약 10만 가마의 비축미를 약탈했다. 이 과정에서 창고건물 벽이 무너지면서 아래에 8명이 압사했다.

타클로반에서는 대형 상점과 식료품 상점들이 잇따라 털리고 심지어 구호물자를 실은 적십자 차량을 공격하는 등 악랄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일부 이재민들의 약탈을 막기 위해 밭로형까지 내린 상태다. /연합뉴스



줄지어 선 탈출 행렬

13일 태풍 '하이옌'으로 인한 집중 피해를 입은 필리핀 레이테(Leyte) 주(州) 타클로반 공항에서 피해 지역을 벗어나려는 생존자들이 미군 수송기를 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필리핀 태풍 사망자 2275명 확인

실종 80명·이재민 60만여명

연락 두절 한국인 23명으로

아키노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한 (사망자) 숫자는 2000명 또는 2500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로와 통신 등이 여전히 두절된 점을 감안하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등들은 보고 있다.

한편 필리핀 태풍피해지역에서 연락 두절된 한국인 수가 당시 23명으로 늘어났다.

13일 주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타클로반 등 레이테 주변에서 모두 55명이 연락 두절된 것으로 신고됐으나 이 가운데 32명의 소재가 파악됐다.

대사관 측은 태풍 피해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족·친지들의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반기문 총장 18일

아우슈비츠 방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역대 사무총장 자격으로는 처음으로 오는 18일 폴란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를 방문한다.

유엔 소식통은 12일(현지시간) "반 총장이 기후변화 협약 관련 유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유럽에 출장하는 동안 폴란드에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를 방문한다"면서 "역대 유엔 사무총장 가운데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하는 것은 반 총장이 처음"이라며 설명했다.

특히 반 총장은 이번 방문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한나절 이상 머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 총장의 이번 방문은 분쟁·학살 방지를 통한 세계평화 실현이라는 유엔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유엔 측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한-러 무비자 관광한다

### "유라시아 시대 열자"朴대통령-푸틴 정상회담

내년부터 한국과 러시아간 무비자 관광이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상호 비자 면제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민간 관광객이 비자 발급 없이 상호 입국해 60일간 관광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만~24만원에 달하는 비자 발급 비용과 소요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러시아에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것은 수교 24년 만이다. 문체부는 내년 소치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러시아에 한류 문화와 한국 관광지를 알리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러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개정 검정기준 '정부 견해 우선' 포함키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법적으로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일본 교과서에 의무적으로 실릴 전망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르면 내년 중 개정할 교과서 검정 기준에 역사 및 영토 문제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에 기반한 기술을 책략하라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검정조사심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르면 내년 중 이런 내용으로 교과서 검정기준을 고칠 예정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위안부 문제와 난징(南京)대학살을 새기준의 영향을 받을 대표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 전남여고 건너편 ◀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균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 상가/건물

- \* 첨단 월계동 LCT워 2층 상가 960㎡ 매 20억(분할 매매 및 임대 가능)(대형병원, 학원, 프랜차이즈 적합)
- \* 고원공체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3천(보1억3천, 월600만 포함) 유명프랜차이즈 입점 중
- \* 서구 아파트지하상가 1,800㎡(점포 7칸) 매10억 (보 1억1천, 월610만, 월5억9천 포함)
- \* 사우나건물(8층) 17억5천(보8천, 월800만 대출 9억 5천), 직영 월천만수입
- \* 도천동 신축창고 대지2,500㎡, 건평500㎡ 17억

#### 대지/전답

- \* 상무지구 대지 405㎡(122평) 매 8억5천
- \* 용전동 전(자연녹지) 1,180㎡ 매5억3천
- \* 완도 약산 전(계획관리) 11,000㎡ 매 8억4천
- \* 장흥 용산면 전, 임야 101,851㎡ 매 6억
- \* 해보면 2차선도로변 담 1,245㎡ 매 9천35백만
- \* 남평 우산리 전(계획관리) 17,000㎡ 매 5억2천

#### 기타

- \* 영암 삼호중공업인근 주유소 매 9억(대출 5억)
- \* 곡성 목사동 식당 1,750㎡ 매 3억9천(금마, 조정가)
- \* 담양 월산면 가든식당 1,520㎡ 매 3억8천

광주, 전남권 매도·매수 상담, 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 투자·감정가 이하

- \* 총장로5가 버스도로 대지777㎡(235) 공시지가 17억7천 오피스텔, 상가개발 적합 9억6천
- \* 험평군 영업 절되는 여관 대지 320평 건평211평 객실 21실 대출4억 교환도 가능 8억8천
- \* 대인동 소방도로 절 상업지역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디세대적합 금남로 5가에 있음 9억
- \* 공장부지 나주시 남평을 비행장으로 부근 2192㎡(663)와 주택 매도 294천
- \* 광산구 신창동 6차선과 4차선 도로 코너 대지302평 건물은 4층 715평 사무, 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적합 등 18억2천 전세3억4천에 월 1600선 수익 증축도 가능 33억
- \* 조선대학교 앞 대로면 동명동 5층건물 대지318㎡(96) 건평 736㎡(228) 상가와 주택 있고 원룸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 2천에 월 500선 수익 매도 9억6천
- \* 나주시 목포시 용당동 MBC방송국 인근 대로변 상업지역 410㎡(124) 상가와 원룸 적합 대출 3억 2천 매도 2천
- \* 남평을에서 차로 10분거리 마을 대지 162평 전원생활적합 대출 2천만원 매도 3백만원
- \* 금남로 3가 부근 식당 대지 62평 건평 128평 5억5천 매도·임대
-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룸·투룸·쓰리룸 92개 허가, 주택기금 12억 가능, 투자에 적합 7억2천
- \* 임대, 신창동 보건대학 부근 주택전시관 1층167㎡(50) 전세 5천에 월200만 임대, 분위기 있는 식당도 적합
- \* 임대·매매, 생활동에 신축증인 기도생활주택 2층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옵션 4평형 주택, 입주는 12월 초,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 투자지는 여러 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문의 222-4994, 010-2632-5659

생촌동 (구) 등기소 자리, 기도 생활주택 전시관

###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우선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근린시설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 근린 시설

- \* 동구 지산동 주거지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김정기4억
-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 2821㎡ 김정기46억 최저가26억
-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 2309㎡ 김정기13억 최저가7억

#### 단독 주택

- \* 북구 장등동 전원주택 대지763㎡ 건평137㎡ 김정기1억8천만
- \*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김정기1억 최저가7천만
- \*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김정기1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 공장 및 창고

- \*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김정기11억 최저가8억
- \* 광산구 용암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1330㎡ 건물 2711㎡ 김정기